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13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강 원 도 의 회
(사회문화위원회)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 참가자 현황	2
III. 연수일정	3
IV. 방문국가 소개	4
1. 캄보디아	4
가. 일반현황	5
나. 역사	6
다. 사회와 문화	7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9
2. 베트남	14
가. 일반현황	15
나. 역사	16
다. 사회와 문화	17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18
V. 주요 연수 내용	22
1. 캄보디아	22
가. 캄보디아 아동센터 방문	22
나. 앙코르와트 문화유산 비교	35

2. 베트남	41
가. 사단법인 한베문화교류센터 방문	41
나.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방문	51
다. 하롱베이 관광지 비교	60
VI. 연수 결과	64
1. 총평	64
2. 분야별 연수결과 및 발전방안	67
가. 문화 및 관광분야	67
나. 보건복지분야	77
다. 시장경제, 에너지문제	81
라. 연수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할 점	85
3. 의정활동 반영 대상 및 방향(요약)	87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13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 ⇒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인 사회·복지·관광 등에 대한 우리도의 정책을 소개·비교하고, 의견교환, 자료수집, 주요 시설 견학 등 다양한 연수 활동을 통해,
 - ⇒ 수집 자료 및 개별 성과들을 의정활동과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I. 연 수 개 요

1. 연수국가 : 캄보디아, 베트남 (2개국)

2. 연수기간 : 2013. 4. 1(월) ~ 6(토) [4박 6일]

3. 연수목적

- 강원도 사회·복지·관광 등 정책 소개 및 비교 시찰
- 방문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현황 파악
- 방문 국가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방문 및 토론
- 역사자료의 자연환경 보존 및 관광자원 활용 정책 시찰
- 강원도 관광자원 및 문화재 홍보 등 교류·우호 증진

II.**연수 참가자 현황**

1. 연수 참가인원 : 11명(사회문화위원회 위원 9, 사무처 2)
2. 연수 참가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2	"	부위원장	김금분	
3	"	위원	곽도영	
4	"	"	김성근	
5	"	"	김양호	
6	"	"	남만진	
7	"	"	원태경	
8	"	"	이학년	
9	"	"	최재규	
10	"	의정담당	이명재	
11	"	주무관	이재선	

Ⅲ.

연 수 일 정

일 자	지 역	출발	도착	연 수 일 정	비 고
제1일 4/1 (월)	인 천 캄보디아	14:00 19:00 22:40	 22:25	- 춘천 집결 후 인천공항 이동 - 인천공항 출발 (3시간 45분 소요) - 캄보디아 씨엠립 도착 - 시내 이동 및 호텔 투숙	
제2일 4/2 (화)	캄보디아 씨엠립	09:00 12:00 13:30 18:00	12:00 13:30 18:00	- 앙코르 톰 탐방 비교 (바이온 사원, 바푸온 사원, 타푸롬 사원 등) * 중식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왓’ 탐방 - 석식 후 호텔 투숙	
제3일 4/3 (수)	씨엠립	09:00 12:30 14:30 16:30 17:30	12:30 14:30 16:30 17:30 21:25	- 왓트마이 탐방 ▶ 20세기 캄보디아의 역사현장 방문 * 중식 및 이동 - 기관방문 : 캄보디아 아동센터(BWC) 방문 ▶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등 청취 - 싸르재래시장 방문 - 석식 후 공항이동(캄보디아 → 베트남) - 베트남 하노이 도착 및 호텔 투숙	
제4일 4/4 (목)	하노이 하롱베이	09:00 10:30 12:00 13:00 14:30 18:30	10:30 12:00 13:00 14:30 18:30	- 기관방문 : 한-베협력센터 견학 ▶ 지구촌나눔운동, 한베협력사업 등 청취 - 기관방문 :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지사 방문 ▶ 베트남, 캄보디아 관광현황 등 자료수집 * 중식 - 비단광장, 호지민 생가 등 탐방 - 하노이 → 하롱베이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제5일 4/5 (금)	하롱베이	08:00 16:00 23:25	16:00 20:00	- 유네스코 지정 세계3대 자연유산인 하롱베이 탐방 - 하롱베이 → 하노이 이동 - 베트남 → 한국 이동	
제6일 4/6 (토)	인천		05:50 10:00	- 인천도착 및 춘천이동 - 춘천도착 및 해산	

IV.

방문국가 소개

1. 캄보디아 (Cambodia)



Cambodia

가. 일반현황

1. 공식국명 : 캄보디아 왕국 (Kingdom of Cambodia)
2.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3. 면 적 : 18만 km²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4. 기 후 :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
 - ※ 20~40℃의 기온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함.
5. 인 구 : 1,495만 명 (2011년)
 - ※ 연도별 인구증가율 : 1.54%(2009년), 1.6%(2010년), 1.68%(2011년)
6. 수 도 : 프놈펜 (Phnom Penh)
7. 민 족 : 크메르(90%), 베트남(5%), 참족(4%), 화교(1%) 등 30여 인종
8. 언 어 : 크메르어 (불어, 영어 통용)
9. 종 교 : 불교(국교, 96.4%), 이슬람(2.1%), 기타 (1.5%)
10. 정 치
 - 가. 건국(독립)일 :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
 - 나.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정부성향 : 친 서방 비동맹 중립)
 - ▷ 국왕 : Norodom Sihamoni (국가원수)
 - ▷ 수상 : Hun Sen(실권자)
 - 다. 의 회 : 양원제(임기 6년의 상원 61석, 임기 5년의 하원 123석)
 - 라. 주요정당
 - ▷ 여당 : CPP(Cambodian People's Party) 및 민족연합전선 연립정부
 - ▷ 야당 : Sam Rainsy Party 등 다수 군소 정당

11. 경 제

가. GDP : 139억 달러 (2011)

나. 1인당GDP : 945달러 (2012) ※ GDP성장률 : 6.7%(2013)

다. 화폐단위 : 리엘 (Riel) ≙ 1\$ ≙ 4,061Riel (2011)

※ 경제전반에 걸쳐 리엘 (Riel) 보다 미 달러가 통용

라. 산업구조 : 농업 (28.4%), 제조업 (30.5%), 서비스업 (41.1%)

마. 주요 수출품 : 의류, 천연고무, 농수산물, 축산물, 담배, 목재 등

바.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기계류 등

나. 역 사

1. 후난왕국 건립, 캄보디아 역사의 시작 (86 ~ 550)
2. 첸라왕국 건립, 7세기 후반 후난왕국 정복 (550 ~ 802)
3. 앙코르 왕국, 크메르 문명의 황금기,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적인 앙코르왓, 앙코르 톰 축조 (802 ~ 1431)
4. 캄보디아 암흑기 (1431 ~ 1863), 외세(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침략기
5. 프랑스 식민 지배기 (1863 ~ 1953)
6. 1953년 독립 후 크메르 공화국과 내전 (1970 ~ 1975)
7. 민주 캄푸치아 정부 수립(1975 ~ 1979)
 - ‘폴 포트’의 지휘 하에 극단적인 공산체제로의 회귀, 집권기간 4년간 무려 150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이 사망
8.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수립(1979 ~ 1991), 폴 포트 축출, 새정부 수립
9. 현재 캄보디아 (1991 ~ 현재) 내전 종료, 양원제 운영

다. 사회와 문화

1. 인구추이

- 가. 1960년에서 1975년까지의 캄보디아 인구는 매년 약 2.2%씩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남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나.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의 '크메르 루즈' 집권기에 약 1백만 명에서 2백만 명의 국민이 죽은 것으로 조사됨.
- 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할 것이며, 2012년 현재 198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의 아이들이 20대를 이루고 있어 두터운 청장년층을 구성하고 있음.

2. 민족 구성

- 가. 인구의 약 90%가 크메르족이며, 그 외에 참족(이슬람교 신봉), 중국계, 베트남계
- 나. 중국계의 상업분야 진출이 두드러지며, 크메르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참족 및 베트남계는 어업에 주로 종사
- 다. 소수 민족으로는 시엠립주 동북부와 캄퐁툼주에 걸쳐 거주하는 쿠이(Kuy)족(약 14,000명), 라타나끼리주에 거주하는 탐푼(Tampuan)족(약 15,000명), 몬돌끼리주에 거주하는 스티엥(Stieng)족(약 3,200명)이 존재

3. 종교

- 가. 헌법에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소승불교) 신자이지만,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
- 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

4. 교육

가.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979년 크메르루즈의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

나. 교육시설, 교사, 교육매체가 모두 부족하며, 수도인 프놈펜의 경우 그나마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는 매우 열악

다. 초등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중·고등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라. 교육제도는 1996년부터 우리와 같은 6-3-3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9년으로 규정

※ 취학률 : 초등학교 94.8%, 중학교 31.9%, 고등학교 19.4%

마. 공립학교가 대부분이나 최근 사립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의 부족으로 오전·오후반 2부제로 학교를 운영

캄보디아 교육 통계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명)	1,895	6,665	1,172	383
학생 수(명)	99,130	2,240,651	585,115	323,583
교사 수(명)	3,211	45,531	24,022	10,056
수료율(%)		83.22	48.71	26.09

※ 자료: 캄보디아 교육부 2011

5. 대학

- 가. 대학은 종합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이 있으며, 왕립법률경제대학, 국립경영대학 등 존재
- 나. 그 외 우리나라의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Faculty가 법률, 경영, 의학, 약학, 공학 등 각 분야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함.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국교수립

- 가. 1970년 5월 18일 ⇨ 외교관계 수립
- 나. 1975년 4월 5일 ⇨ 공산화에 따른 대사관 철수
- 다. 1996년 5월 15일 ⇨ 대표부설치 합의
- 라. 1997년 10월 30일 ⇨ 외교관계 재개 및 대사관 설치

2.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7), 투자보장협정(1997), 항공협정(2001), EDCF공여기본협정(2001),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EDCF 협정(2001),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2002), 도로개보수 EDCF 협정(2002), 수자원개발 EDCF 협정(2006), 문화협정(2006),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2007),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2008),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2009) 및 발효(2010)

3. 재외국민 현황

- 가. 2007년까지 급속히 증가했던 캄보디아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불황기를 겪으면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0년 말 기준 약 5,000명으로 추산

나. 직업군별로는 선교사, 봉제 및 건설업체 등 상사직원, 식당업, 관광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대부분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시엠립 등지에도 약 1,000명 거주

다. 특히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지역의 선교 거점국가로 다수의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단기선교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도 증가 추세(2006년 6월 캄보디아 종교부는 노상 선교활동, 방문 전도활동 등은 제한하는 부령을 발령)

4. 관광교류

가. 우리나라는 수년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중 1~2위 유지

나. 2004~2008년간 5년 연속 1위를 고수, 2009년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전년대비 46.5% 증가(289,702명 방문)

※ 266,625명(2008), 197,725명(2009), 289,702명(2010), 342,810명(2011)

5. 문화 예술 교류

가. 2001.4. 한·캄보디아 문화교류계획서 서명(2001-02년간 예술, 교육, 영화 등 양국간 문화교류 시행)으로 문화예술교류 시작

나. 한국영화제 개최 등으로 한류 확산, 인천시립무용단,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경기도립전통무용단, 한국 국립발레단 프놈펜 공연 등

6. 한류동향

가. 방송, 영화, 음악 등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한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한국 음식 및 패션 또한 주목 받고 있음.

나. 주요 분야별 동향

① 방송분야

㉠ 캄보디아 현지 방송국 중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 폴하우스와 대장금 등 캄보디아 한류 열풍 초기에 방영된 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한국드라마는 시청률 보증 수표로 자리 잡음.

㉡ 런닝맨을 비롯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 또한 다수 수출되어 방송됨.

㉢ 한국 뮤직비디오와 음악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하는 채널이 따로 있을 정도로 K-POP 관련 방송 또한 인기 있음. 그 중 My TV의 경우 공영방송인 CTN에 이어 14%로 시청률 2위를 기록하고 있음.

② 영화분야

㉠ 안방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 배우들이 인지도를 높여가는 만큼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캄보디아에서 인기 있는 배우는 이영애, 송혜교, 권상우, 비 등이 있으며,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드라마가 방영되는 만큼 한국 배우의 인기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인 쏘리아 백화점에는 영화 및 드라마의 DVD 를 판매하는 상점이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영화 및 드라마임. 단, 전량 불법 복제품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임.

㉕ 아직 프놈펜에 영화관이 규모가 작아 한국영화가 상영된 적은 없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영화관을 찾고 있는 만큼 한국 영화도 곧 상영될 것으로 기대됨.

③ 음악분야

㉔ My TV, Sea TV 등에서 한국 가요의 뮤직비디오 및 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훈센 공원과 리버 사이드(Riverside)에서 매일 저녁 K-POP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문화가 발달함. 한 명의 강사가 노래를 틀고 춤을 추면 현지인들이 1000 리엘 (약 300 원)을 내고 따라 추는 형식이지만, 워낙 K-POP 매니아 층이 두터워 안무를 대부분 외우고 있을 정도임.

㉕ 샤이니, 원더걸스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을 카피한 그룹이 존재함. 특히 원더걸스를 카피한 그룹인 RHM 의 경우 노바디(Nobody) 노래와 안무를 그대로 카피하여 유튜브에 올려 50 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반응을 보임.

㉕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현지인도 있는 반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현지인 또한 다수 존재.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부분의 한국 유명 가요가

현지어로 번안되어 노래방 기계에 등록된 상태임.

㉠ 빅뱅, 소녀시대, 2NE1이 가장 인기 있으며, 손담비, 애프터스쿨 등이 2011년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공연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음.

④ 패션, 뷰티, 의료분야

㉠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인기로 젊은 층에서 한국패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고의류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음.

㉡ 부유층 고객을 타깃으로 한 뷰티 살롱들이 입점하고 있음. 피부 미백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메이커의 썬크림(sunscreen)이 그들에게 너무 비싸 구입할 엄두를 못 내고 있음. (네이처 리퍼블릭이 캄보디아에 진출)

2. 베트남 (Vietnam)



가. 일반현황

1. 공식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중국, 베트남, 라오스와 접경)
3. 면 적 : 33만 km² (한반도의 약 1.5배)
4. 기 후 :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5. 인 구 : 8,784만 명 (2011년)
6. 수 도 : 하노이 (Ha Noi, 인구 670만명)
7. 민 족 : 베트남족(89%) 외 54개 소수민족
8. 언 어 : 베트남어
9. 종 교 : 불교(12%), 카톨릭(7%) 등
10. 정 치
 - 가. 건국(독립)일 : 1945년 9월 2일 (일본으로부터 독립)
 - 나. 정부형태 : 공산당 1당제 (집단지도체제)
 - ▷ 당서기장 : Nguyen Phu Trong ('11.1월 선출)
 - ▷ 국가주석 : Truong Tan Sang ('11.7월 선출)
 - 다. 의 회 : 임기 5년 단원제(의석수 500)
11. 경 제
 - 가. GDP : 1,190억 달러 (2011)
 - 나. 1인당GDP : 1,300달러 (2011)
 - 다. 화폐단위 : 베트남동 (VND) ⇨ 1\$ ≒ 20,862 VND
 - 라. 산업구조 : 제조업, 광업, 농업, 어업, 임업, 관광, 서비스업

나. 역 사

1. 기원전 2919년 베트남 최초의 국가인 홍방 왕조가 세워짐.
2. 기원전 257년 특판 왕조로의 교체
3. 기원전 111년에 한나라에게 복속 (이로부터 10세기까지 간헐적인 독립 운동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지배를 받음)
4. 응오 꾸옌이응오 왕조 베트남 독립 쟁취(939년) 후, 베트남 왕조의 통치가 이어져 15세기 레왕조에서 그 절정에 달함.
5. 1802년 베트남을 통일하여 응우옌(Nguyễn) 왕조 수립. 현재의 베트남의 영역을 이루게 됨
6. 1885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됨.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프랑스가 통치) : 호찌민 등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전개
7. 종전 후 프랑스의 재개입(군대파견)으로 인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발발(1946년)
8. 디엔비엔푸 전투에서의 승리로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 협상(1954년)
 -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해체 및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
9. 톱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쟁(1964 ~ 1975년) 발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남베트남을 지원, 이에 맞서 중국과 북한도 비공식적으로 각각 전투원을 파견하여 북베트남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됨.
10. 1980년대 이후부터 개방 정책을 펼쳐 서방 세계에 문호를 개방

다. 사회와 문화

1. 인구추이

- 가. 2011년 기준 베트남의 총인구는 약 8,784만 명으로 추정되며 남녀 성비는 남자 약 4,344만 명, 여자가 약 4,440만 명으로 여성 인구가 많고, 도심 거주인구는 31.7%로 68.3%가 비도심 거주 인구임.
- 나.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넓은 피라미드형으로, 이는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전후 출생의 10대, 20대 젊은 연령층이 많음. (현재 인구의 50%가 30대 미만)
- 다. 이러한 젊은 연령층은 산업성장 원동력임과 더불어 베트남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매년 높은 성장으로 베트남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 민족 구성

- 가. 베트남인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엣(Viet)족이 전체 인구의 약 85.72%를 차지하고 있음.
- 나. 그 밖에 타이(Tay)족(1.89%), 타이(Thai)족(1.81%), 호아(Hoa)족(0.96%), 크메르(Khmer)족(1.47%) 등 여러 산악 소수민족 등이 있다. 특히 Sapa 지역(북부)에는 Mong, Dao, Giay, Tay, Xa Pho 주민 등의 소수민족이 밀집 거주하고 있다.

3. 종교

- 가. 베트남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정책을 쓰고 있으

나 실제로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정책에 협력해야만 함.

나. 전체 인구의 18.23%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 구성비는 불교(43.5%), 카톨릭교(36.3%), 기독교(4.7%), 까오다이교(5.2%), 호아호아교 (9.2%)로 되어 있음.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국교수립 : 1992년 12월 22일 수교 (상주 대사관 설치)

2. 정치·외교관계

가. 구 월남 정부와의 관계

①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프랑스로부터 베트남 독립, 남북 분단) 이후 1955년 10월 한국은 월남공화국을 승인하고, 1956년 5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

② 1973년 3월 5일까지 한국은 월남전에 총 6차례에 걸쳐 약 31만 명을 파병하였고 월남 패망 직전인 1975년 4월 30일 대사관을 철수함으로써 양국의 외교관계가 종료됨.

나.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

① 베트남전쟁 종전으로부터 17년이 지난 1992년 4월 2일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연락대표부 설치에 대해 합의하여, 1992년 8월 주 베트남 연락대표부를 설치

② 1992년 12월 22일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1993년 11월 19일에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을 설립하였음.

다.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선언

- ① 2001년 8월 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한-베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21세기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발표
- ② 2003년 Phan Van Khai 총리 방한, 2004년 ASEM 정상회의 계기 노무현 대통령 국민 방문 및 2005년 이해찬 총리 공식 방문 등 정상간 빈번한 상호 방문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

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① 2009년 5월 Nguyen Tan Dung 총리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자 합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기반 구축, 원자력 분야 협력토대 강화 논의. 이어 2009년 10월 20~22일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②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2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며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를 위해 노력

마. 베트남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 ①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 ②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 태도 견지

- ㉠ 북한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지지
- ㉡ 통일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경험을 반영,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강조
- ③ 20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식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교류 증진의 계기 마련. 고위급 교류 방문과 수교기념 국제 세미나 등의 외교 분야 행사와 더불어 양국 국민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류스타 초청행사, 한국 음식문화 축제 등 다양한 문화 교류프로그램 실시

3. 경제

가. 한국-아세안 FTA 발효

- 2009년 5월 1일부로는 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됨.

나. 한-아세안 FTA가 한국-베트남의 교역확대 기여

- ① 2003~2006년 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증가율은 약 14.4%였으며, 상품시장 개방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역 증가율은 24.2%로 약 10% 포인트 증가하였다.
- ② 발효 이전 15.8% 증가한 베트남의 對한국 수출은 발효 이후 34.8% 증가했고, 수입은 발효전후로 각각 14.2%에서 21.7%로 증가하였음.

다. 양국 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아직 낮아

- ① 베트남의 관세인하 계획은 기존 ASEAN 국가(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늦으며(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가 철폐 예정), 일부 품목은 MFN보다 고율관세 유지현상 발생으로 FTA를 통한 급격한 관세 혜택은 미미
- ② 한-아세안 FTA에서 베트남의 일반 품목의 관세 0~5% 적용 계획은 2015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최종 소비재도 관세 인하가 실행되면 양국은 FTA를 통해 한국은 베트남에 소비시장 확대,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투자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라.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 ① 2012년 한-베트남 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선언
- ② 최대 쟁점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정도로 베트남은 자국의 최대 생산품목인 쌀을 비롯해 과일, 수산물의 관세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 예상

V. 주요연수내용

1. 캄보디아 (Cambodia)

가. 캄보디아 아동센터 방문

- ▶ 민간단체로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소외계층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로터스 월드 캄보디아 지부(캄보디아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아동복지 실태를 알아보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격려.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13. 4. 3 (수) 14:30 ~ 16:30 (120분)

나. 방문인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9, 전문위원실 2

다. 현지전경



2. 현지 방문 일정표

일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4. 3		14:30		▷ 캄보디아 아동센터 도착	
(수)	14:30	14:40	10'	▷ 지우 스님 인사말씀 및 위원장 답사	
	14:40	15:00	20'	▷ 캄보디아 아동센터 주요사업 청취	
	15:00	16:00	60'	▷ 아동센터 주요시설 견학	
	16:00	16:20	20'	▷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토론	
	16:20	16:30	10'	▷ 선물 전달 및 기념촬영	
	16:30			▷ 이동	

3. 일반현황(개요)

로터스월드는 ☰ > 단체소개 > 로터스월드는

불교의 자비와 평등·평화사상에 입각하여
국내외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개발NGO입니다.

2002년부터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 앙코르 와트 세계문화유산이 소재한 시엠립 지역에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설립, 운영해 왔으며 빈곤아동의 복지와 교육사업, 초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지원사업**, 빈곤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빈곤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 개안수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개 원 : 2006.11 (2005년 센터 건립 공사 착수)

나. 주요시설 : 도서관, 남녀아동 기숙사, 교실, 병원, 사무실, 게스트 하우스, 스텝하우스, 법당

다. 아동현황 : 70여명 (고아 또는 결손가정의 자녀, 부모가 있으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아동)

라. 근무인력 : 52명 (현지 직원 41, 한국인 직원 5, 해외봉사단 6)

마. 걸어온 길

① 2002년 ⇨ 캄보디아 지원 사업 착수

- ② 2004년 ⇨ 캄보디아 정부와 MOU 체결
- ③ 2005년 ⇨ 캄보디아 국제NGO 등록
- ④ 2006년 ⇨ 캄보디아 아동센터 완공 및 아동보육사업 착수
- ⑤ 2007년 ⇨ 아동결연 및 식수지원 사업 착수
- ⑥ 2008년 ⇨ 아동센터 내 '김안과' 병원 개원, 안과진료 및 무료개안 수술 지원(연간 3회)
- ⑦ 2009년 ⇨ 주민을 위한 다목적센터 완공(캄보디아 시엠립), 초등학교 화장실 건립지원 사업 착수
- ⑧ 2011년 ⇨ Lotus 희망미용센터 개소('함께일하는재단'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위생시설 지원 및 위생 교육사업' 추진
- ⑨ 2012년 ⇨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KOICA 지원) 추진

바. 주요사업

① 아동보육사업

㉠ 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을 보육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캄보디아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자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아동의 관심분야를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보육아동 : 남녀 아동 70명 (2013년 3월 현재)

▷ 학업현황 : 초등학생 19명, 중.고등학생 51명

㉔ 주요 프로그램

- ▷ 교육 프로그램 : 한국어, 영어, 컴퓨터 교육
- ▷ 정서지원 프로그램 : 예체능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
- ▷ 의료지원 프로그램 : 건강검진, 각종 예방접종

② 취약계층 교육 지원 사업

㉑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가 소재한 시엠립 외곽의 농촌마을은 전체 주민 가운데 35%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10명 중 3명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함.

㉒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갖지 못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으며, 농사를 지어도 높은 생산성을 내지 못하여 가난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음.

㉓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는 KOICA의 지원을 받아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성인들과 가난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동들의 초등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성인 문해교실(크메르어, 수학, 농업기술교육 등), 아동초등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㉑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상당한 부분의 교육시설을 상실하였음. 이는 교육시설 부족으로 이어져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1일 4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의 질이 매우 낮은 실정임.

㉒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는 열악한 학교시설의 개·보수

뿐만 아니라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교사 및 도서관 신축을 지원하고 있음.

④ 아동결연사업

○ 초등학교에 등록해 놓았지만 가난 때문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빈곤가정의 아동, 부모가 HIV/AIDS 또는 중증 질환으로 사망하여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아동, 부모의 이혼 및 가출로 인한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

⑤ 빈곤청소년 직업훈련사업

㉠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만 졸업한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로터스 희망미용센터에서 미용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음.

㉡ 또한 자신들이 받은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의 빈민촌을 방문하여 이미용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

㉢ 프로그램 내용

▷ 교육과정 : 기초과정(6개월), 중급과정(6개월)

▷ 참가자 혜택 : 중식비 제공,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자전거 지원, 취업알선 등

▷ 기타 프로그램 : 빈민촌 이미용 봉사(매월 1회)

⑥ 위생시설건립 및 위생교육사업

○ 캄보디아에서는 학생 1,000명당 화장실이 1칸인 학교들이

많음. 화장실 부족으로 아이들이 야외에서 배변을 보다가 콜레라, 이질 등의 수인성질환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별 화장실 지원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⑦ 주민 무료 진료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 자외선이 강한 환경 때문에 캄보디아 주민들 가운데 유독 백내장과 익상편 환자들이 많음.

㉡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는 2007년 이후부터 동양 최대의 안과병원으로 알려진 '김안과'병원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아동센터 내 안과병원을 설립하고 시엠립 주민 대상으로 개안수술 및 안과, 산부인과 진료를 진행해 오고 있음.

㉢ 진료현황

▷ 진료과목 : 안과, 산부인과

▷ 진료 및 수술 활동 : 연간 3회

▷ 진료 및 수술 인원 : 진료 6,000여명, 개안수술 200여명

※ 로터스월드 홈페이지 : <http://www.lotusworld.or.kr>

5. 주요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

《 지우 스님(인사말 및 현황소개) 》

- 강원도의회는 캄보디아 아동센터 방문을 환영하며, 동 센터 방문을 계기로 해외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현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2004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도에 개원하게 되었음.

-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위생사업(화장실, 우물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안과'병원의 도움을 받아 1년에 3번 개안수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남경문 위원장(인사말) 》

- 직접 와서 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캄보디아의 사회 환경이 생각보다 매우 열악한 상태였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간단체에서 국제봉사활동을 통해 국익을 높여 주는 것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림.
- 동 시설을 방문하게 된 배경 또한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해외봉사활동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아동센터 운영 관련 질의 및 답변 》

- 시설관리 현황, 기숙사 운영 형태는 (남경문 위원장)
 - ▶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임. 아동과 후원자 1:1 결연을 통해 후원금으로 학업도구를 구입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지만 적금도 들어주고 있음.

- ▶ 기숙사는 한 실당 최대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음. 현재는 각 실당 평균 7~8명이 거주하고 있음.
- 교육과정 및 퇴소 후의 진로는 (김금분 부위원장)
 - ▶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퇴소 후 성적 우수자의 경우는 대학진학을 도와주고 있으며,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 교육 알선. 또한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사회진출 시 제공.
-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은 (남만진 의원)
 - ▶ 캄보디아 전체가 전력난을 겪고 있어 일반 가정이나 시설까지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가정, 시설 등은 대다수 자가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음.
- 시설운영에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지원은 없는지, 아동복지사업 확대 계획은 (김양호 의원)
 - ▶ 캄보디아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함. 오히려 동 센터의 개원 시 인근 주변 아이들의 무상위탁을 요청할 정도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전무.
 - ▶ 보다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싶으나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나, 장기적 과제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 정규교육과의 관계, 교육방식, 아이들의 적응 정도는 (최재규 의원)
 - ▶ 센터의 교육이 정규교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 학교 정규수업을 모두 받고 그 이후에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한국에 비교하자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 교육방법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음. 캄보디아는 날씨가 매우 더워 정규교육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있어, 오전 5시에 기상하여 정규교육 시간 전까지 오전 공부를 시키고, 오후 정규교육 시간이 끝나면 밤 10시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음.
- ▶ 대다수가 불우 아동으로 정규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개발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개원 초기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음. 이탈 사유로는 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육 보다는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이 많기에 노동현장으로 간 경우도 많았음.
- ▶ 현재는 아동선발에 있어, 적응력과 교육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 재정 여건상 모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 시설 및 교육 확대계획은 (곽도영 의원)

- ▶ 재정과 시설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무리한 시설의 확충, 센터의 확대 보다는 알찬 운영이 우선이며, 시설 등의 확대는 장기과제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캄보디아 종교계와의 마찰은 없는지 (원태경 의원)

- ▶ 아동센터는 순수하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종교와는 무관한 시설이기에 종교적 마찰은 전혀 없으며, 현지 스님을 강사로 모시어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 개인 후원금 이외 단체의 후원금은 없는지 (김성근 의원)
 - ▶ 조계종이 주 후원처임. 개인의 후원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대다수의 경비는 조계종과 로터스월드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 지역사회 효과, 부모들의 재정 부담 여부 (이학년 의원)
 - ▶ 교육의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없이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큼.
- 학생선발 방법은 (김양호 의원)
 - ▶ 학생모집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음. 교육의지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센터의 선생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학생들이 퇴소를 하고 사회에 기반을 잡게 되면 향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
- ▶ 캄보디아 아동센터의 출발점이 아이들의 복지 차원에서 교육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나아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캄보디아 아동센터 방문

	
<p>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우 스님</p>	<p>사무국장으로부터 캄보디아 아동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음</p>
	
<p>지우 스님으로부터 동 센터의 설립배경 시설현황,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 설명을 듣고 있음.</p>	<p>캄보디아 아동센터 전경. 좌측이 기숙사와 화장실 등 생활공간이며, 정면이 학교 식당과 교실임.</p>
	
<p>기숙사 시설 견학. 내부는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어 촬영할 수가 없었으나 시설이 매우 깨끗하였음.</p>	<p>아동들이 이용하는 식당(급식)시설을 견학 하고 있음.</p>

캄보디아 아동센터 방문



식당(급식)시설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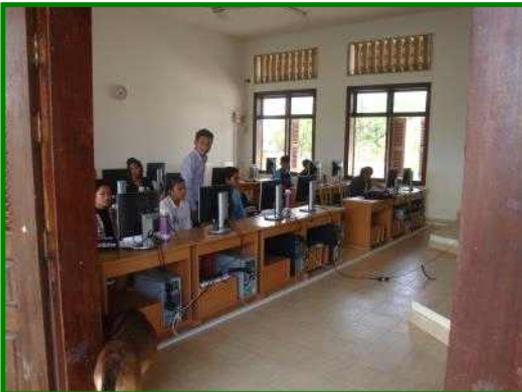
주방 내부 전경



김안과 병원으로 이곳에서 1년에 3회 개안 수술이 이루어짐. (백내장, 녹내장 환자 수술 1,000명을 돌파)



교실 견학 (교실 외부 모습)



컴퓨터 수업 시간
(컴퓨터 : 수원시 기증)



수학 수업 시간

캄보디아 아동센터 방문



담장을 자원봉사자와 아이들이 힘을 합쳐 그림으로 장식.



선물(보온병) 증정



기념 촬영

나. 앙코르와트 문화유산 비교

- ▶ 세계 3대 불교 사원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를 방문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계승 발전 방향 검토.

1. 개요(배경)

- 가. 앙코르톰의 남쪽 약 1.5km에 있으며, 12세기 초에 건립되었다. 앙코르는 왕도(王都)를 뜻하고 와트는 사원을 뜻함.
- 나. 당시 크메르족은 왕과 유명한 왕족이 죽으면 그가 믿던 신(神)과 합일(合一)한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왕은 자기와 합일하게 될 신의 사원을 건립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유적은 앙코르 왕조의 전성기를 이룬 ‘수리아바르만 2세’가 바라문교(婆羅門教) 주신(主神)의 하나인 ‘비슈누’와 합일하기 위하여 건립한 바라문교 사원임.
- 다. 후세에 이르러 불교도가 바라문교의 신상(神像)을 파괴하고 불상을 모시게 됨에 따라 불교사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건물·장식·부조(浮彫) 등 모든 면에서 바라문교 사원의 양식을 따르고 있음.

2. 건립규모 및 구성

- 가. 바깥벽은 동서 1,500m 남북 1,300m의 직사각형으로 웅장한 규모이며 정면은 서쪽을 향하고 있음. 바깥벽 안쪽에서 육교로 너비 190m의 해자(壕字)를 건너면 3기(基)의 탑(塔)과 함께 길다란 익랑(翼廊)이 있고 여기서 돌을 깔아놓은 참배로(參拜路)를 따라 475m쯤 가면 중앙사원에 다다름.

- 나. 사원의 주요 건축물은 웅대한 방추형 중앙사당탑(中央祠堂塔)과 탑의 동서남북에 십자형으로 뻗은 익랑, 그것을 둘러싼 3중의 회랑과 회랑의 네 모서리에 우뚝 솟은 거대한 탑으로 이루어 졌는데, 구성은 입체적이고 중앙은 약간 높음.
- 다. 회랑의 높이는 제1회랑(215×187m)이 4m, 제2회랑(115×100m)이 12m, 제3회랑(60×60m)이 25m이다. 세계의 중심이며 신들의 자리를 뜻하는 수미산(須彌山)은 돌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쌓아 놓았으며, 높이 59m의 중앙사당탑의 탑 끝에서 3중으로 둘러싼 회랑의 사각탑 끝은 선으로 연결해보면 사각추(四角錐)의 피라미드 모양이 됨.
- 라. 이 사원의 뛰어난 미술적 건축양식은 인도의 영향도 받아들이 기는 하였지만 건물의 형태나 석조장식(石彫裝飾) 등 모든 면 에서 앙코르왕조의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음. 특히 전장 (全長) 760m에 이르는 제1회랑벽(回廊壁)의 부조, 제2회랑 안 의 돌로 조형한 샘물[泉水], 제3회랑 내부의 화려한 십자형 주 랑(柱廊)과 탑 등은 뛰어난 구조물임. 조형에서는 하늘의 무희 (舞姬) 아프사라스, 여러 개의 머리를 마치 부채처럼 치켜든 커 다란 뱀, 창문·기둥의 장식조각 등이 돋보임.
- 마. 앙코르왕조는 13세기 말부터 쇠망하기 시작하여 15세기경에는 완전히 멸망하여 앙코르와트도 정글 속에 묻히게 되었는데, 1861년 표본채집을 위해 정글에 들른 프랑스 박물학자가 이곳을 발견, 그때부터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됨.

바. 이 지역은 1972년부터 외부인에게 폐쇄된 이후 전화(戰禍)와 약탈로 훼손되거나 외국으로 유출되어, 완전한 복구는 어려운 상태임.

사. 유네스코에서는 1983년 이 유적지의 복원을 위해 조사단의 파견 하였으며, 현재까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3. 문화탐방 총평

가. 앙코르와트 방문을 하면서 문화재 약탈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으며, 한 번 파괴되고 약탈된 문화재의 복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실히 공감할 수 있었음.



* 좌측은 머리를, 우측은 꼬리를 약탈하였음.

나. 세계적인 유산이기에 현재 유네스코 주도로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

다. 유네스코의 복원 방식이 매우 독특하였음.



- ① 복원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색깔, 질감 등에서 너무 달라 문화재의 복원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나, 복원된 부분과 원상태인 부분의 차이를 일반사람들이 눈으로 확연히 구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복원원칙으로,
- ②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물론 복원의 어려움과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앙코르와트가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축조가 거의 불가능하여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 우며 유명해졌으나, 베트남의 '하롱베이'처럼 앙코르와트 '타프롬 사원'에서 촬영한 영화 '툼레이더'의 영향도 매우 컸음.

- ① 주연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 촬영 때 자주 방문했다는 '레드 피아노'라는 레스토랑은 유명 관광지가 되었고,
- ② '레드 피아노' 인근 거리는 영화의 세계적 흥행으로 인한 효과로 외국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되었으며, 현재는 '외

국인 거리'로 명명되어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장소로 변모하였음.



* 좌측은 영화 속 장면이며, 우측은 현장으로 세계인들의 '포토존'이 되었음.

마. 강원도의 경우 '겨울 연가'로 인해 한류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한 만큼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2의 한류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임.

앙코르와트 문화탐방



2. 베트남 (Vietnam)

가. 사단법인 한베문화교류센터 방문

- ▶ 현재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베트남 여성들의 결혼이주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현지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활용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13. 4. 4 (목) 09:00 ~ 10:40 (100분)

나. 방문인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9, 전문위원실 2

다. 현지전경



2. 현지 방문 일정표

일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4.4		09:00		▷ 한베문화교류센터 도착	
(목)	09:00	09:10	10'	▷ 심상준 대표 인사말씀 및 위원장 답사	
	09:10	09:20	10'	▷ 문화교류센터 주요사업 청취	
	09:20	10:40	80'	▷ 다문화 관련 토론 및 질의·답변	
	10:40	10:45	5'	▷ 시설 견학 및 기념사진 촬영	
	10:45			▷ 이동	

3. 한베문화교류센터 일반현황

가. 법인설립 : 2010. 4월 (1995년부터 문화교류 시작)

2011. 1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나. 대 표 : 심 상 준 (베트남학회 한류위원장, 베트남 하노이 NGO 협회 고문, 한베다문화가족연구소 소장)

다. 주요사업 : 결혼이주여성교육, 베트남거주 한베다문화가정 지원, 아동결연사업, 빈곤지역 유치원신축, 농촌의료봉사, 한국어 베트남어 교실 운영, 한베말하기대회, 한베청년문화교류, 한글날 기념 행사 등 개최, 다에다문화학교 운영(위탁형 대안학교) 등

※ 한베문화교류센터 홈페이지 : <http://www.koviculture.net/>

4. 주요 발언 및 토론내용

《 심상준 대표(인사말 및 소개) 》

○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2002년 전북도청과의 업무협의로 시

작된 '시골 청년 장가보내기'로 시작하였으며,

- 200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단체로는 처음으로 다문화사업단체로 선정, 예산을 지원 받아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삼성전자로부터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 한-베간 다문화가정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① 현지 출장을 통해 맺어진 경우, ② 제3국 유학으로 맺어진 경우, ③ 베트남 유학으로 맺어진 경우, ④ 베트남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맺어진 경우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 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처우문제임.
-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문화로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음. 자녀 교육은 물론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집안의 호주 또한 여성이 다수인 사회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임.
- 한-베문화교류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런 문화적 차이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결혼을 앞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15일간 숙식을 제공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한 민간단체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교육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매월 약 700명 정도의 베트남 여성이 취업과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가고 있지만 동 센터의 교육인원은 30명으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함.)

-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정착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전교육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정책적 건의사항으로 다문화상담사를 각 국가별로 두고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문화상담사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공유하고 배울 수가 있음에도 한국의 현실은 몇 개국을 묶어서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으며,
- 다문화 상담사는 반드시 담당 국가 현지에서 문화, 사회전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남경문 위원장 (인사말 및 문제점 등) 》

- 사회문화위원회에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다문화임. 한베문화 교류센터를 방문하게 된 계기 역시 다문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협조를 구하게 되었고,
- 베트남 현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좁혀 보고자 하는 것도 방문 이유 중 하나임.
- 한국에서도 이주 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중개업소로 인한 피해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이주 여성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결혼을 이

용하는 경우, 현지 여성과의 만남에 소요되는 비용 과다 등)

- ‘다문화’라는 것이 예전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이제는 보편화 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게 필요하며,
-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앎’이 우선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필요한 시점으로 민간단체의 노력이 그 차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김금분 부위원장 》

- 베트남에서 한국문화 알리기(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에 힘써 주시는 것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노력은 한류로 대변되는 화려한 한국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모습들을 감싸 줄 수 있을 것임.
- 베트남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시집살이’로 대변되는 한국문화와 관련 있을 것임. 특히, 시골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임.
- 베트남의 생활문화와의 차이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문화교육이 선행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임.

《 원태경 의원 》

- 동 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성공사례 등을 책으로 만들어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센터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제는 수범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베트남 여성이 TV, 영화 등을 통해 접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동경, 환상 같은 것이, 실제 한국에 오면 대다수가 시골에서 거주하게 되어, 기대치의 붕괴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런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수범사례'의 전파도 중요하지만 '실패사례'의 소개를 통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 이학년 의원 》

- 현지 중개업소의 농간으로 한국 남성은 물론 베트남 여성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인 만큼 민간 단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 남만진 의원 》

- 현재 강원도의회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문화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매월 다문화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다문화 가정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

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지 방문 및 확인을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① 언어, ② 자녀, ③ 경제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임.

① 언어 : 첫 번째 언어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현재 동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사업은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도 언어가 통하면 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여지가 있음에도 언어의 소통이 안 되는 까닭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② 자녀 :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문제는 차별(왕따)일 것임. 지금까지 여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다문화가 우리들의 일부라는 것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아주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강원도(홍천)에도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이제 걸음마 단계수준임.

- 한베문화교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동 센터가 서울에 대안학교인 '다애다문화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경험 있는 단체에서 대안학교 설립에 적극 앞장서 주어야 함.

- 강원도의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민간단체의 노력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동 센터가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도 다문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다문화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함.

③ 경제 :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음. 한국에 이주할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보니 이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부분 또한 민간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김양호 의원 》

○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남북의 문화적 차이도 큰 것으로 알고 있음. 동 센터가 위치한 하노이가 북부의 중심 도시이기는 하지만 거리나 지역적 한계를 봤을 때 남쪽 지역의 여성들이 동 센터의 교육수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임.

○ 다문화가정에 대한 동 센터의 지금까지의 노력도 민간단체로서 대단한 역할을 하신 것이지만 한국으로 향하는 700명의 여성 중 30명에 대한 교육은 매우 극소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인원 또한 북쪽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음. 민간단체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쪽에도 이와 같은 문화교류센터(분소 개념)를 두어 보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 심상준 대표 요청사항 》

- 다문화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일 것임. 센터에서는 그 해결방법의 최우선이 의사소통이라는 판단 하에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며, 아울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언어교육, 한국문화교육만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음. 한국 사람들의 베트남에 대한 문화체험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베트남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한국에서도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가능해 지는 것임.
- 베트남은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고, 경제 활동을 전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매우 활동적이며, 적극적임. 한국에서는 베트남 여성이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베트남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임.
- 이렇듯 상호 살아왔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문화가정의 성공을 담보할 수가 없음.
- 지역을 대표하고 계신 분들이니만큼 다문화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의 수립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림.

한베문화교류센터 방문



한베 문화교류센터 심상준 대표로부터 센터의 출발동기, 연혁, 현재의 역할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받고 있음.



한베문화교류센터 김혜선 팀장으로부터 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있음.



업무추진 현황 청취



업무추진 현황 청취



기념품(필갑 및 부채) 전달



기념 촬영

나.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방문

▶ 베트남 현지에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를 방문하여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광현황 및 교류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강원도와의 관광교류 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함.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13. 4. 4 (목) 11:00 ~ 12:10 (70분)

나. 방문인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9, 전문위원실 2

다. 현지전경



2. 현지 방문 일정표

일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4.4		11:00		▷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도착	
(목)	11:00	11:10	10'	▷ 지사장 인사말씀 및 위원장 답사	
	11:10	11:25	15'	▷ 하노이 지사 현황 및 주요사업 청취	
	11:25	12:05	40'	▷ 베트남·캄보디아 관광 관련 토론 및 질의·답변	
	12:05	12:10	5'	▷ 기념촬영	
	12:10			▷ 이동	

3.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일반현황

가. 지사설립 : 2011. 2월

나. 관할구역

① 베 트 남 : 63개의 성, 2개의 특별시(하노이 및 호치민시),
3개의 중앙 관리 도시(하이퐁시, 다낭시, 칸터시)

② 캄보디아 : 프놈펜, 씨엠립, 바탕밤, 씨아누크빌, 캄퐁참 등
다. 운영인력 : 10명(지사장, 주재원 2명, 현지직원 4, 인턴 3명)

라. 주요사업 : 한국관광 홍보 및 마케팅, 기업인센티브 판촉사업 등

4. 한-베트남 관광교류 현황

가. 베트남 관광시장 동향

① 2012년 방한 노동비자 쿼터 제한으로 노동 목적 입국객 감소

② 한국관광객 베트남 입국 큰 폭으로 증가. 베트남 출발편 좌석
부족 등 문제 발생

③ 베트남 경제 위기 지속으로 인한 관광 수요 침체로 방한 입국객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

④ 베트남인 방한관광 증가를 위해서는 비자, 가이드, 숙박 등의 장애요인 개선이 시급

나. 한-베 관광객 교류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베트남 → 한국 (성장률 %)	76,402 (26.8)	75,978 (-0.6)	90,213 (18.7)	105,531 (17.0)	106,507 (0.9)
한국 → 베트남 (성장률 %)	449,237 (-7.6)	362,115 (-19.4)	495,902 (36.9)	536,408 (8.2)	700,917 (30.67)

※ 출처 : 베트남관광청 www.vietnamtourism.gov.vn,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다. 항공운항 현황

- 2013년 2월 현재 : 주 181회, 약 20,000석 운항 중

항공사명	구 간 명	운항수	비 고
제주항공	호치민 ↔ 인천	주 7회	
베트남항공	하노이, 호치민 ↔ 인천, 부산	주 56회	
대한항공	하노이, 호치민 ↔ 인천, 부산	주 64회	
아시아나	하노이, 다낭, 호치민 ↔ 인천, 부산	주 33회	
United Airlines	하노이, 호치민 - 인천	주 21회	
합 계		주 181회	

라. 관광시장 규모

구 분		2008	2009	2010
출국자수 (천명)	한국	11,996	9,494	12,488
	베트남	1,497	1,558	1,851
관광지출 (백만불)	한국	19,065	15,000	17,700
	베트남	3,904	3,387	3,614
입국자수 (천명)	한국	6,891	7,818	8,798
	베트남	4,236	3,747	5,050
관광수입 (백만불)	한국	9,774	9,819	9,765
	베트남	3,930	3,050	4,450
관광의 GDP 비중 (%)	한국	5.4	5.7	5.1
	베트남	5.3	4.4	4.3
관광의 고용 기여도 (%)	한국	5.6	5.9	5.4
	베트남	4.5	3.7	3.6

5. 주요 발언내용 및 토론내용

《 강성길 지사장 (인사말 및 소개) 》

-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방문 감사드립니다. 하노이 지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한국관광 홍보 및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베트남의 한국관광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한류를 이끌고 있는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베트남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한류 특별관심층(상류층)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판촉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
- 다만,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에는 한계가 있음.
-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인원이 매년 크게 늘고 있음. 세계적 관광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임.

- 베트남 입국 통계 -

(단위 : 명)

년도별	입국자수	증감율(%)	비 고
2005	3,467,757	18.4	
2006	3,583,486	3.0	
2007	4,171,564	16.0	
2008	4,253,740	0.6	
2009	3,772,359	-11	
2010	5,049,855	34.8	
2011	6,014,032	19.1	
2012	6,847,678	13.9	

※ 출처 : 베트남관광청 www.vietnamtourism.gov.vn

《 남경문 위원장 》

- 한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하노이 지사의 노고에 감사.
- 베트남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젊은 층이 대다수인 인구의 구조,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을 보면 신흥 경제개발국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 하노이 지사에서는 현재 베트남에 붙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하여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관광 판촉활동에 힘써 주시고,
- 특히 강원도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대외여건이 많이 강화되고 있으며, 겨울 관광 상품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뿐 아니라 강원도와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당부.

《 한-베트남 관광교류 여건 관련 질의 및 토론 》

- 베트남의 한국관광 선호 형태는 (남경문 위원장)
 - ▶ K-POP과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한류열풍이 거센. 한국관광 또한 드라마 위주의 간접 문화체험과 쇼핑(상류층의 쇼핑 구매력은 매우 높음)을 선호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성형 등 의료관광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임.
- 강원도-베트남 관광 현황은 (김금분 부위원장, 김성근 의원)
 - ▶ 베트남의 한국관광 주요 목적이 한류로 인한 것으로 현재 대다수가 서울과 제주(휴양지 & 노비자)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임.

강원도는 겨울철 스키관광을 매우 선호하고 있음.

- 강원도와의 전세기 운항 가능 여부는 (남경문 위원장, 이학년 의원)
 - ▶ 현재로선 무리임. 한국관광 주요 고객들이 상류층으로 서울 관광을 선호하고 있어, 모객의 어려움이 있으며,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일반 관광객의 모집이 필요하지만 빈부의 격차로 인해 일반인들의 관광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임.
- 강원도-베트남 관광 문제점 (최재규 의원)
 - ▶ 베트남에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5~7일 소요), 절차(재정증명이 첨부되어야 하고, 보증이 필요) 등이 매우 까다로움. 베트남 특수층이 제주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절차(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를 거치지 않고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임.
 - ▶ 강원도 방문 시에도 제주도처럼 이런 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불법체류 등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음.
- '노비자' 추진 장애 요인 (김양호, 남만진 의원)
 - ▶ 베트남의 인구 특성이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노동력이 넘쳐 나는 상태로, 한국을 관광이 아닌 생계를 목적으로 한 취업을 위해 방문하려는 경향이 높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강원도-베트남 관광활성화 방안 (곽도영, 원태경 의원)

- ▶ 베트남의 상류층의 해외여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쇼핑 구매력은 중국 관광객들보다 더 높음.
- ▶ 강원도의 스키 등 겨울 관광 상품을 선호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높으나, 강원도의 경우 쇼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함.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관광객들의 쇼핑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방문



강성길 지사장과 남경문 위원장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음.



강성길 지사장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의 연혁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받고 있음.



하노이 지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관광교류 현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음.



기념 촬영



기념 촬영

다. 하롱베이 관광지 비교

▶ 유네스코 지정(1994년)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하롱베이'를 방문하여 세계 문화유산의 관리 실태 및 관광사업 현황 등을 파악

1. 일반현황(개요)

- 가. 하롱베이 국립보호구역의 면적은 1,553km²이며, 섬의 수는 1,969개로 그중 980개에 이름이 있음.
- 나. 하롱베이는 '내려오는 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하롱베이에 흩어져 있는 섬들은 베트남을 침략한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준 용들이 만들었다고 함.

2. 자연환경

- 가. 지질학의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은 한때 석회암 산맥이 있었던 곳인데 강물에 깎이고 동굴이 붕괴하면서 카르스트 지형이 되었으며, 그 후에 바다에 잠기게 됨. 푸른 물이 차오르면서 섬들은 온갖 형상으로 깎여 12미터 높이의 닭 두 마리, 9미터 높이의 두꺼비, 돌로 된 거대한 향 받침대,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생긴 섬 등이 생겨남.
- 나. 동굴과 해안 아치도 발달해 있으며, 동굴들은 대부분 희한하게 생긴 종유석과 석순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음.
- 다. 이 지역에서 보고된 산호초는 170여 종에 달하며, '하롱부채야자수'처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음.

라. 만의 남서쪽에 있는 '캣바 섬'의 석회암 숲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멸종위기에 처한 영장류인 캣바랑구르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골든헤드리프 원숭이'라고도 불린다. 보호 노력을 비롯이라도 하듯 자행되는 밀렵 때문에 이 원숭이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임.

마. 1992년 개봉작 '인도차이나'와 1998년 개봉작 '007 네버 다이'에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곳이기도 함.



3. 관람총평

- 가. 천혜의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었으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래도록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인 것 같음.
- 나. 기본적인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이유에는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인 '인도 차이나(1992년)'와 '007 네버 다이(1998년)' 때문임.
- 다. 1994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지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큰 역할을 담당한 것임.

하롱베이 문화탐방



VI. 연수결과

1. 총 평

- 금번 사회문화위원회의 캄보디아·베트남 국외연수 목적은,
 - 현지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베문화교류센터와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위원회 소관 분야인 복지 분야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문화에 대한 현지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 방문국가들의 주요 관광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롱베이’와 ‘앙코르와트’를 방문하여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양국의 관광실태를 살펴보고,
 -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방문을 통해 강원도와의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추진한 것으로,
- 국외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현지에서 논의되었던 세부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강원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베문화교류센터’를 방문,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차이에

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 현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이주여성들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반쪽 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한국남성의 이주여성 국가에 대한 문화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대한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필요.

○ 캄보디아 아동센터의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 아동복지의 현 수준을 알 수 있었음.

-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나라의 민간단체가 현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음.
- 또한, 복지라는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아동복지에 대한 기본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를 방문하여,

- 강원도 관광 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관광 홍보시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지방공항(양양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베트남과 강원도와의 전세기운항 가능여부, 모객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나, 방문국의

경제적 여건이 아직까지 해외관광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음.

-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는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상류층의 한국관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이들의 쇼핑 구매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타겟 마케팅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세계문화유산인 '하롱베이'와 '앙코르와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나, 이를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린 것은 인도차이나, 007, 톱레이더 등과 같은 영상산업(영화)을 통해서임.

- 현재 강원도에서도 도내 시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강원문화재단을 통해 연간 3억원의 제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현재 개봉되고 있는 영화인 '몽타주'(주배경: 춘천경찰서, 영월경찰서, 춘천중앙시장 등)와 앞으로 개봉예정인 '미스터리고'(주배경: 춘천의암야구장), '관상'(주배경: 강릉선교장) 등은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들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강원도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영상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비록 이번 국외연수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선진 제도나 우수한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으나,

- 우리도가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금번 우리 위원회의 베트남·캄보디아 국외연수를 통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음.

2. 분야별 연수결과 및 발전방안

가. 문화 및 관광분야

1. 관광지를 활용한 전통문화 홍보 검토

- “무질서 속의 질서”가 관광의 편안함과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가 되는 요건인 것임.
- 경제적 후진국이 관광의 후진국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후진국의 다소 무질서한 듯 한 관광지의 질서가 마음의 여유를 주고 시간을 두고 걷고 싶은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됨.

- 전통식당의 전승문화공연은 보기에 따라서는 허접하고, 최소 인원의 공연으로 규모 면에서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네들의 정성을 들인 공연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전통식당의 전승문화공연〉

- 호텔 전통악기 연주는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없지만 식사시간, 출발시간을 전후하여 1인 또는 2인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리려 하고 있음, 순수한 호텔 측의 장소제공과 봉사차원의 연주로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데는 더 없는 방법으로 보여 짐.



〈호텔 내에 전시된 전통악기와 공연모습〉

- 앙코르와트의 거리공연은 마을 주민이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민요를 연주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들은 관광객이 주는 소액으로 악단을 꾸려 나가는 듯 보이지만, 이 나라의 특성상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수입만을 위한 거리연주는 아니라고 판단 됨



〈앙코르와트의 거리공연 모습〉

〈검토과제〉

① 특성을 살린 관광 개발

- 우리의 경우 관광지 조성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형화 되고, 행정의 주도적으로 정비를 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시책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임.
- 유럽의 정형화되고 정비된 오랜 관광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동양적인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는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한 우리의 전통을 살려 옛날 것 그대로를 보존하는 노력과 복원의 예산 투입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임.

② 호텔, 식당의 전승문화 공연

- 큰 예술성이 없어도,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라는 점에서는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관광 문화분야의 예산투입은 도립예술단이나 예술단체의 육성은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인간문화재 등을 활용한 공연실시를 검토하여, 예산의 지원방법을 예술단체 지원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어렵고 힘든 예술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배려함도 바람직 할 것임.

③ 전통악기를 활용한 문화의 우수성 홍보

- 관광지 호텔, 콘도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장소를 할애 받아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 가야금, 피리 등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봉사료를 지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사시간 전후, 출발시간 전후에 연주를 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함도 고려해 볼만한 시책이라 판단 됨.

2. 전쟁 유적지의 원형 보존



- “아픈 역사도 역사”이다. 앙코르 와트나, 베트남의 경우 일본과

서구열강의 침략과 내전을 치열하게 겪는 나라들로, 모두 전쟁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은 다시는 아픈 과거가 없기를 바라는 정부의 시책중의 하나 일 것이다

- 어떤 국가이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어려울 것일 진데, 개방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다시는 아픈 일이 없도록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듯 보인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승기념관이나, 전쟁기념물을 전시하는 정도의 전쟁유적지 관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격전지를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 주요 유적으로는,
 - **앙코르와트 유적 : 12세기에 건립된 왕이 모신 신의 유적**
 - 오래 동안 밀림 속에 묻혀 있었으나, 18세기에 발견된 것으로 유적으로의 가치가 있는 세계적 유산이지만, 전쟁 속에서 그 피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다.
 - 지금도 복원중이고, 앞으로 복원에 몇 년이 더 소요될 지도 모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버려진 것 같은 유적의 잔해는 관광객에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유적지임에는 틀림없다.
 - 군데군데 있는 내전의 흔적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결코 그것을 감추려 하지도, 복구에서 우

선순위를 두는 것도 아닌 듯한 인상을 받았다.

- '킬링필드'를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 인골 탐



- 정권을 잡기 위한 한 개인의 야욕은 인류에게 실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안겨준다.
- 수많은 피해자가 공공연하게 처형되어 한곳에 매장되는 역사를 간직한 캄보디아는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견학한 곳은 수많은 인골 무덤 중 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 한편으로는 인골 탐을 공개하는 것이 잔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아픈 그 나라의 역사임에는 틀림없고 보면,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나름대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숙연해 지는 면도 있다.

- 베트남의 지하 병커의 관광지 개방

- 베트남의 지하병커는 내전을 치루면서 외세의 개입에 따른 방어 수단의 일종인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 베트남 한국관광공사 방문일정관계로 견학은 못하였지만, 일단

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상도 공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실어 본다.

〈검토과제〉

① 일본군 침략 역사의 원형 보존

- 우리 민족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일본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지금도 일본은 침략 자체를 정당화 하려는 정부 지도자의 발언 들이 쏟아지고, 영토 확장을 위한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다.
- 결코 짧지 않은 36년의 수탈의 역사는 아직도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수탈의 역사는 아프면 아픈 대로 공개하고, 알리고 후손에게 대물림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에 건축한 주택, 광산, 문화재 수탈 등등 널려진 유적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② 6.25전쟁의 상처 보존

- 외국에서는 우리의 6.25를 남북의 내전으로 보는 나라가 아직도 많은 것 같다.
- 결코 우리의 6.25는 민족간 내전이 아니고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전쟁이었음은 우리 국민 밖에 모르는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원인부터 전쟁과정, 결과를 현장에 흩어진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인이 되는 세대에 침략을

경계하고 자존을 세우는 이유를 알려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다행히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휴전선 관련 사업과 함께, 도내에 산재한 전 유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금 우리가 양성하고 있는 관광 도우미, 가이드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현장에서 홍보하는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체계적 관광홍보 기법의 개발

○ 스토리 텔링의 적절한 활용

- 앙코르와트는 분위기조차 음습한 분위기의 유적이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유적지 별로 스토리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한 것이 특징이다.



- 광장 정면에는 한그루의 파인애플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내전 당시 처형대상자에게 총탄을 아끼려고 뽕족한 가지로 처형을

했다고 한다.

- 유적지 중간쯤에는 나무뿌리가 쥐 모양의 “쥐 나무”, 뱀 모양의 “뱀 나무” 등을 스토리로 엮어 가이드에게 활용하고 있다.



- 전통 시장 내의 007 영화 촬영 중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자주 찾았던 “레드 피아노” 카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 느린 관광의 실현으로 관광객의 체류를 실현

- 우리 관광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캄보디아 또는 베트남 모두 느린 관광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접근도로와 관광지가 상당 거리 이격되어 있는 것이 그 주요 요인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 관광지 내부에서의 이동은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 때로는 걷고, 때로는 매우 느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체류기간을 길게 하고, 그 구간 마다 자생조직이나 개인 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관광객을 특별한 수단 없이 접촉하도록 하여 그 나라의 문화, 생활 습관 등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검토과제>

① 스피드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 관광객의 도내 체류 시간을 관광지 면적을 대비 한다면 결코 캄보디아나, 베트남처럼 장시간은 아닐 것이다.
- 그 이유는 우리의 관광지는 접근성을 높여 스피드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때로는 느낌의 아름다움이 있고, 느낌이 필요한 부분이 관광분야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지금 시작되고 있는 체험관광, 체류관광이 이런 점을 중요시 한 것 같다.

② 주변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관광자원의 개발



- 주변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관광지 체험이 어려운 여건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 관광지와 접근을 하려면 일정한 공간을 경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변 도민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 우리 국민의 우수성, 우리 전통 생활 공예품의 우수성 등을 자연스럽게 접해야 다시 찾을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생활 그 자체의 접촉이 다시 찾는 향수를 갖게 한다.
- 예를 들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유적지내 툭툭이를 이용한 스로우 관광, 베트남 하롱베이 “느린 목선”을 이용, 3천개가 넘는 섬들의 탐방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나. 보건복지분야

1. 일반현황

○ 우리나라

- 사회복지의 수준은 그 나라의 소득수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복지는 방문 국민 캄보디아, 베트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의 혜택을 받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직업에 따라 기피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른바 급여의 보충적 수단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그들과의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 한 것일 수도 있다

○ 방문대상국

- 대부분 열대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특별히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는 우리보다 약해 보인다.
- 이런 연유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공부에 열중할 연령대인 아동이 노점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반드시 팔아서 수입을 올려야겠다는 절박함은 없어 보인다.

- 장례문화 또한 관습의 영향으로 슬퍼하기 보다는 망자의 영혼을 환송하는 듯 보인다.



2. 복지방향

- 그들과 양지가 있다면 부와 빈이 있다. 인류 역사상 반드시 있었던 구분이지만, 우리는 이 빈부의 격차를 줄여 모두 행복한 생을 살기를 바라며, 함께 부조하여 복지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다.
- 다만, 방법 선택에 따라 복지실현의 시기는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음을 현지에서 볼 수 있었다.
- 서비스 제공대상의 선정을 어떤 계층에 두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아동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소득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등의 문제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3. 복지방법

- 단순히 시급한 의·식·주를 위주로 복지를 시행할 것인지, 대가성 복지,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할 것인가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현지 방문결과 아직은 소득 위주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여

거리 아동에게 복지세어스 제공이 시급함을 보기도 했다.

4. 장례문화

- 장례문화는 관습적으로 3년의 지하매장 후 납골당에 보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납골당은 우리나라의 납골묘와는 달리 화려한 지붕과 외부 장식으로 납골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사찰에 존재하는 탑과 같은 유형으로 마을 중간에 가옥의 한 가장 자리에 조상과 함께 생활을 한다.



<검토과제>

① 복지의 수출

- 경기도 수원시는 베트남의 “한베문화교류센터”에 컴퓨터를 지원하여 대한민국 수원시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키고 있었다.
- 그곳에서 공부한 학생은 평생 대한민국의 수원시를 기억하고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는 희망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언젠고 한번은 가보고 싶은 도시로 남아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면, 그 이상 확실한 투자도 없을 것으로 복지의 수출시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어, 우리나라와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유일한 분단 도(道)로서 소규모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복지분야의 수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② 복지방법의 검토

- 복지분야를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불과 2일의 짧은 기간 중 일부를 할애하여 복지시설을 보았다하여 복지방법을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복지수준을 보며, 아직도 우리의 그늘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노숙자, 부랑아 등을 보며, 성급한 생활수준 향상만을 위한 가시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여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최하위에 머무르는 소수를 위한 복지 서비스제공과 자립능력 제공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따라서, 일정수준에 도달한 자립가능한 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줄임과 동시에 생산적 활동의 정도를 보아 차별적 지원을 하고, 최하위 생계보장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예산의 추가 투자 없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

③ 장례문화의 검토

- 유교적 장례문화가 깊은 우리의 경우 장례문화를 한 순간에 고친

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 더구나 다른 나라의 방법이 표면상 옳다고 보여 그 방법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 그러나, 일단 캄보디아, 베트남의 장례문화는 정신적인 차이는 차치하고, 외부로 표출되는 방법만은 적용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가족의 주변에 납골탑을 만들고, 그 탑 자체가 가족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장례문화는, 장례라기보다는 사후에도 가족과 함께 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의 유교 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정책적으로 잘 연구하여 적용한다면 묘지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 시장경제, 에너지문제

1. 전통시장

○ 우리나라

- 우리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낡은 시장을 모두 철거하고, 현대식 건물로 말끔히 단장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 방법이다.

○ 방문대상국

- 그러나, 캄보디아, 베트남의 전통시장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시장임을 볼 수 있었다.

- 고유의 민속시장과 현대식 카페가 공존하고, 그 문화가 이상하게 편안한 장터의 분위기로 다가서고, 그 가운데에서 시장으로서 있을 것은 모두 있는 분위기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시골 옛집이나, 장터에 온 것처럼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2. 에너지 절약 생활

○ 우리나라

- 생활 주변에서의 에너지 절약 습관화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 것 같다.
- 우리나라의 호텔은 출입구에서 스위치를 터치하면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끄게 하는 방법으로 조명을 한다.
-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출입구에서 메인 스위치를 켜면 전체 조명 등이 켜지는 시스템으로 관광객에게 편리성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 우리의 건물은 대부분 도로에 인접하고 접근성을 제일 먼저 고

려하여 건축하여 왔고, 요즘 들어서 이러한 추세는 다소 변형이 되어 가는 추세다.

- 그러나 대부분 사각의 건물이고, 정원이라는 개념 없이 자동차에서 내리면 바로 호텔 입구가 되는 형태이며, 이러한 방법은 가정이나, 아파트도 크게 다르지 않다.

○ 방문대상국

- 대부분의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은 부분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출입구 스위치는 출입구만을 조명하고, 옷장의 스위치는 옷장만 조명을 한다. 이런 방법은 숙박실 내부 곳곳을 구획하여 단위 시설별로 조명을 한다.
- 비데도 대부분 수동 비데를 사용한다. 이러한 부분은 사소해 보여도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고, 외국의 관광객도 다소 생소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호텔의 편리성과 호텔의 등급을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다.
- 건물은 열대 수목이기는 하지만 울창한 숲을 지나 그 사이 길로 접근을 한다. 물론, 이런 방법은 우리와 다른 나라의 수종이나 환경자체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
- 이러한 방법은 열대 기온을 상당히 저하 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도 숲으로 이뤄진다. 건물의 지붕도 사각형의 옥상이 아닌 박공형 지붕으로 대부분 건물이 덮여 있어 폭염과 습기로부터 건물의 보호 공간을 조성한 것을 볼 수 있다.

<검토과제>

① 전통시장

- 우리의 전통시장 조성도 특별한 지역여건이 없다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전면 개선 방법도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보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살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개선하는 방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실시하여 외국 관광객이 찾을 때 우리의 옛것과 정결하고 청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도 검토해 볼만 하다.

② 에너지 관리

- 우리나라도 요즘 들어 하절기, 동절기에는 심각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 에너지 부족문제는 에너지의 생산성 한계와 맞물려 사용을 자제하는 정책으로 절약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 그렇다고 건물이나 환경을 에너지 절약 환경으로 일시에 모두 전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웃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신축 건물 부터라도 조명시설, 화장실 시설, 조경문제, 건물의 형태를 규제하여 에너지 절약 측면을 고려하여 행정지도 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라. 연수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할 점



○ 연수준비

- 대부분의 연수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관계로 위원회에서 필요한 연수가 되기보다는 예산에 맞추는 대상국가의 선택으로 연수효과 측면에서는 기대가 어려운 실정임.
- 연수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연수경비에 사용되고, 방문예절이나, 의회의 품위 유지를 위한 경비를 포함하면 의원이 자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 이런 문제는 연수 성과적인 측면 보다는 연수 대상국의 연수 방문 기회를 불러올 염려가 있어, 해소를 위한 방법의 강구나, 계획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다.

○ 연수효과 거양을 위한 사전준비

- 연수효과 거양을 위해 사전 준비는 필수적이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현지 여행업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가 천혜의 자연자원과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고장이라는 말을 하지만, 외국 여행업체가 우리 도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야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우리를 알리는 홍보부족을 절실히 절감했다

⇒ 향후 연수에서는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보다 많은 양을 소지하여 방문 기관별로 배부하고, 현지 여행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우수한 여행 상품을 홍보하여 연수와 홍보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연수 준비 사항

방문기관	준 비 사 항			비 고
	선 물	의회홍보물	관광홍보물	
캄보디아 아동센터	▷ 보온병	5부(한영판)		
한·베문화교류센터	▷ 필갑 및 부채	5부(한영판)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 필갑 및 부채	5부(한영판)	3종 20부 (영문판)	

※ 캄보디아 아동센터 선물(보온병)의 경우, 해당 단체와 사전 조율을 거쳐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요청 받아 전달하게 되었음. (※ 캄보디아의 경우 물 정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온병이 절실이 필요)

3. 의정활동 반영 대상 및 방향(요약)

항 목	반 영 방 향
○ 복지 분야 해외 진출로 자원화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기관단체, 종교관련 시설 등 해외 아동복지 투자 방안 ※ 인적 네트워크가 자산인 시대 도래 대비
○ 동남아 상류 청·장년 관광객 유치	○ K-POP, 강원도 촬영 드라마, 영화 등 동남아에서 시청률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청장년 상류층 관광객 유치 방안 ○ 스키 등 동계관광객 유치 방안 ○ 베트남 남부, 캄보디아 관광객 모집 방안 ※ 베트남 : 북부 위주에서 남부 활성화 병행
○ 장기적 안목의 관광홍보 활동	○ 대중적 관광객 유치는 어려운 편이지만, 외국 기업의 다수 진출로 빠른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장기적 안목의 관광객 유치 전략 필요. ※ 고소득층 → 중간계층 → 대중적 관광객 유치
○ 접경지역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 60~70년대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국가로, 국가적 동질성이 있음 ※ DMZ, 전적지, 전승지를 포함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유치 방안
○ 다문화 가족 관련 분야 - 문화적, 관습적 격차 해소 방안 - 연계사업의 확충 방안 - 베트남 남부 이주희망자 기회 부여 - 성공, 실패 사례 발굴 홍보	○ 다문화 가족 분야별 검토 방향 - 전통적 모계사회와 우리의 평등사회와의 문화적 전통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다문화 가족 증가에 따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의 현지 체험과 접목 반영 - 남부 이주 및 결혼 이민 희망자 관리 방안 강구 ※ 현지 안내 방안, 도 전입 후 안내 방안 - 하노이 결혼상담 교육과 연계한 성공 및 실패 사례 발굴 이주자에게 적용
○ 장례문화의 개선	○ 매장 문화 → 납골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해외 사례 전파 등 지속적 홍보 방안
○ 최하위 계층의 복지 서비스 제공	○ 복지국가이면서 노숙자, 부랑인, 부랑아동 등 최하위 부족한 서비스 제공대상자 자립방안 강구 ※ 그늘 없는 공평 복지 제공 → 생산적 복지 방안
○ 관련시설 건립시 권장 사항	○ 조명등 전기절약, 수자원 절약, 건물 상단부 열전도 완충, 반사열 최소화를 위한 건물간 식수(植樹) 등 현지 사례 접목

※ 이 수록 부분 : 방문 성과 참조